

충남 농업 · 농업인의 여건변화 전망

(본고는 ‘충청남도 3농혁신 2030 발전계획’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조영재 I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충남 농업의 미래 전망

농업경영과 소비패턴의 양극화 심화 전망

현재의 산업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이며,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대농(대규모 농가)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생산-대량유통체계와 중·소농(소규모 고령농)을 중심으로 하는 다품종·소량생산-틈새시장유통체계가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선, 대농을 위주로 하는 농업은 관행농과 첨단기술농업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와 함께 글로벌 농업회사, 기업농 등 전문농업경영체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유통은 주로 대규모 수직계열화(RPC, APC, LPC, GPC 등) 및 광역브랜드 기반의 대량유통체계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의 시장과 수출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한편, 중·소농을 위주로 하는 농업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지역순환형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지향적 농업으로 재편될 것이며, 경영체는 주로 전업농보다는 겸업농이 중심이 되고, 이들이 농어업6차산업화 등을 주도하는 핵심주체가 될 것이다. 유통은 주로 중·소규모 경제공동체(작목반, 농어업법인 등)와 농가브랜드 기반의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친환경 및 소비자 친화형 로컬푸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소비패턴에 있어서는 건강과 안전을 지향하는 소비성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등의 일부 소비자를 중심으로 가격과 양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패턴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양과 건강, 안전과 신뢰, 가치 중심의 소비패턴은 상류층과 함께 중산층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소비자 지향 유통체계로의 전환

미래 건강·장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웰빙,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식품소비 패턴도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와 함께 GAP, HACCP 등이 확대 정착될 것이다.

현재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는 소비자 중심 및 수요·시장 지향의 유통체계로 변화될 것이며,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가격 및 품질 중심에서 가치와 신뢰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농교류, 도시농업,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활성화 될 것이다. 특히, 농업·농촌의 가치와 건강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확대·정착될 것이며, 주로 중·소농, 가족농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유통이 로컬푸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농업·농촌 문제해결 접근방식의 변화 및 ‘신농업인’의 등장

농업·농촌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농업인만의 단순한 경쟁력 강화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에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고하고 이러한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을 통하여 농업인 외에 비농업인, 소비자 및 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기존의 수동적이고 시장경쟁의 수혜자의 태도에서 먹을거리에 대해 직접적·능동적(소비자협동조합 등) 태도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농정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향후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의 도래함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와 함께 단순한 농업생산의 범주를 벗어나 귀농·귀촌 컨설턴트, 도시농업 컨설턴트, 농촌유학 프로그램 매니저, 지역문화 해설사 등과 같은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신농업인’이 등장할 것이다. 이들은 농식품의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농어업6차산업화, 농어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성장에도 상당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농업경영과 소비패턴의 양극화 심화 전망

산업사회가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 진행

- 2030년은 산업사회에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의 모습이 공존하고 양극화 형태로 진행될 것임

<표 1> 산업사회의 발전 단계와 농업의 특징

| | 농경사회 | 산업사회 | 후기산업사회 |
|----------------|--|---|--|
| 시장 여건 | o 자급자족(먹을거리) - 생계형 생산=소비 - 단순교환 | o 시장화(값싼 식품) - 상업적 이윤추구 - 시장경쟁, 판매우선 | o 탈시장화(좋은 식품) - 신수요·신상품 지향 - 세계화, 틈새시장 |
| 농업 생산 방식 | o 자연의 지배 - 자연이용 - 자연재해의 최소화 | o 자연의 정복, 약탈 - 토지 약탈 - 생태계 파괴 | o 자연과의 조화 - 자연재해의 관리 - 친환경, 생태계 복원 |
| 농업 기술 성격 | o 증산을 위한 생물학적· 화학적 기술 - 생계형 다품목 소량생산 - 분산화, 다양화 | o 이윤추구를 위한 비용 절감 기술 - 대량생산의 단작화 - 규모화, 전문화 | o 안전한 식품을 위한 융복합 기술 - 고품질 다품목 소량생산 - 탈규모화, 시스템화 |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농 위주의 농업과 중·소농 위주의 농업의 양극화 진행

- 규모화 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대농 위주의 농업과 고령농, 중·소규모 농가 위주의 농업의 양극화와 함께 소비패턴의 양극화도 진행될 것임
- 대농(대규모 농가) 위주의 농업은 첨단농업기술 발전과 함께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재편되고 대량생산-대량유통 구조를 바탕으로 광역 소비와 수출시장을 주도하고, 전문농어업경영체, 대규모 기업농이 등장하기 시작
- 중·소농(소규모 고령농) 위주의 농업은 친환경농업과 농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다품종 소량생산-틈새시장 유통 구조를 형성하고, 소비자 친화형 로컬푸드 시장을 주도할 것임

전문 농업경영체 중심의 전업농 재편

- 농업구조가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재편되어 전업농 생산비중의 대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청장년 전업농 및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여 건설한 중소기업 수준의 경영자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임
- 또한, 대규모 농산물 유통회사(조합)가 계열화 형태로 조직화 되어 전업농들을 이끌어 나

갈 것이며, 이들 조직체가 국내유통을 지배하고 수출시장에 진출할 것임

가격과 양 - 건강과 안전 중심 소비패턴의 혼재

- 소비패턴은 상류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영양과 건강, 안전과 신뢰,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패턴으로 고착화되고, 빈곤층 및 저소득층은 여전히 가격과 양 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패턴을 보일 것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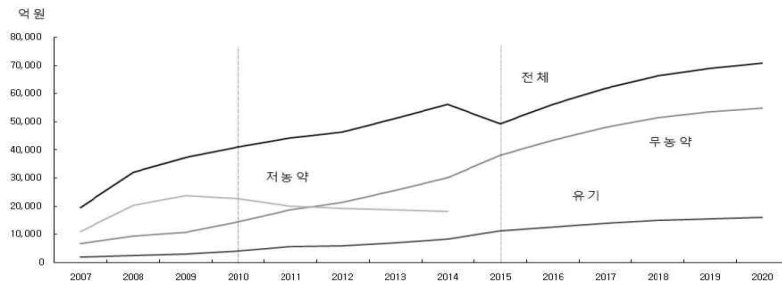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3농혁신 2030발전계획, 2014

<그림 1> 농업경영과 소비패턴의 양극화 전망

2. 농식품 안전 수요 증가 및 소비자 지향 유통체계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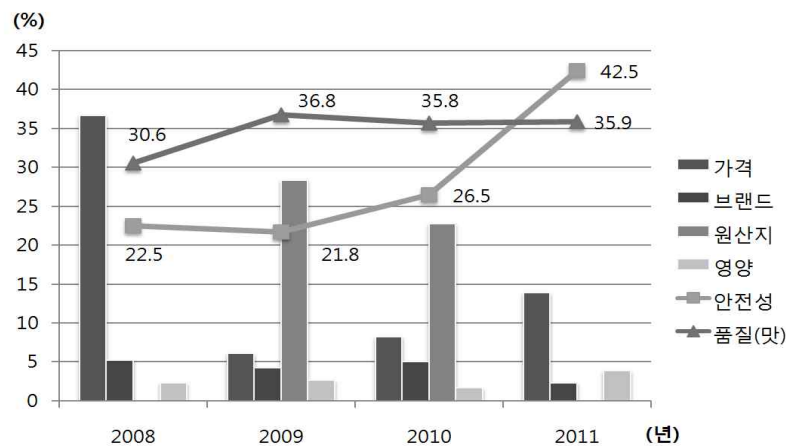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대 및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 증가

-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어 2030년에는 전체 농산물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2050년에는 5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미래 건강·장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더 웰빙, 건강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이와 함께 식품소비 패턴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호하는 농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GAP, HACCP 등이 확대 정착될 것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그림 2>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전망



주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

2. 채소, 육류, 곡물, 과일에 관한 도시민 조사결과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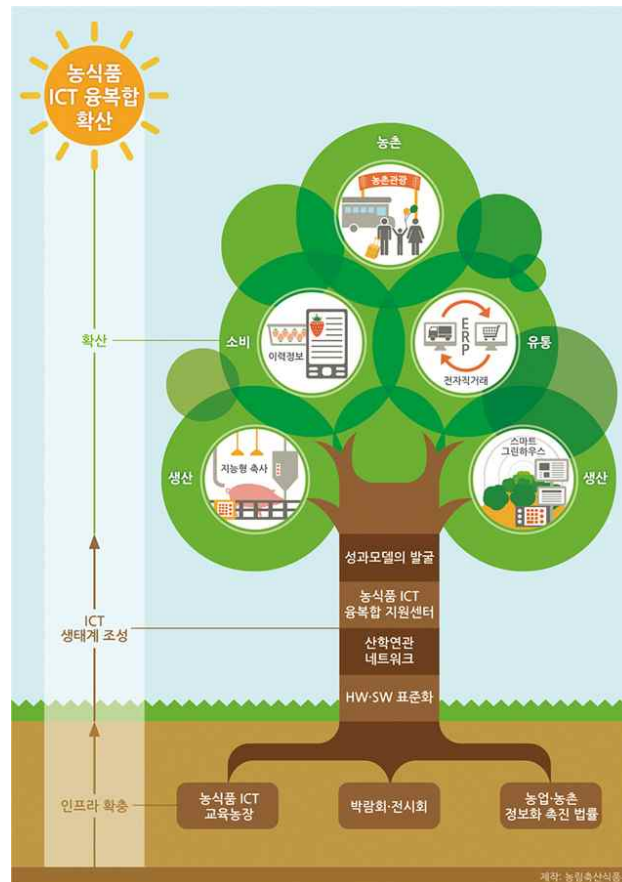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3농혁신 2030발전계획, 2014

<그림 3> 도시민의 농식품 구매 고려사항 변화

첨단기술농업 및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발전

-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에 도시지역 대부분이, 2050년에는 보령, 태안 등 해안 지역들이 아열대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생태계의 변화 및 수확량 감소, 병해충 발생 등 농작물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평균기온 2℃ 상승할 경우 벼 수확량은 4.5% 감소 추정)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기초로 한 과학적 스마트농업(smart agriculture) 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특히 ICT, IT, NT, ET 등의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완전제어형 식물공장(또는 수직농장) 등이 이슈화 될 것임
- OECD는 2030년경에 글로벌 경제에 대규모 변화를 가져오는 바이오경제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래 농업은 식량공급과 함께 동식물자원 등 생

명자원을 IT·BT·NT와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3

<그림 4>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개념도

소비자 및 수요 지향 유통체계로의 변화

- 현재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계에서 소비자 중심 및 수요·시장 지향의 유통체계로 변화될 것이며,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가격 및 품질 중심에서 가치와 신뢰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농교류, 도시농업,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활성화 될 것임
- 특히,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건강한 지역먹거리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로컬푸드 운동이 확대·정착될 것이며, 주로 중·소농, 가족농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계의 유통이 로컬푸드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
- 한편, 인터넷과 IT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더욱 빠르게 진화할 것이며, 물류체계와 관련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 공동출하 비율이 빠르게 진전되어 유닛로드시스템(ULS), 저온 유통체계(cold-chain system) 등의 선진유통체계가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전자태그(RFID)가 바코드시스템을 완전 대체하고, 사이버마켓(virtual market)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산자-소비자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 식품판매장 등이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농산물 유통체계의 변화 전망

| 구분 | 현재 | 미래 |
|-----|--|---|
| 산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선별, 저온저장, 예냉, 소포장 등으로 상품화·브랜드화 o 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유통업체 등에 출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전처리, 가공 등 유통업체·식품가공업체·식자재업체 등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산·맞춤유통 구현 |
| 물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표준규격 파레트, 하역기계화 등 현대식 물류 표준화 구현 o 부분적인 ULS, 저온유통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ULS, 콜드체인시스템 완비 o RFID 기반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o 생산·유통 이력추적 관리 |
| 소비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도매시장의 물류기능 중시 o 대형유통업체의 비중 증가 o 다양한 소매 신흥태 등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도매시장은 가격형성기능 담당 o 대형유통업체, 통신판매 비중 증가 o 웹 기반의 전자상거래(직거래) |

자료 : 김정호 외, 2010, 농업·농촌 2030/2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업·농촌 문제해결 접근방식의 전환 및 ‘신농업인’의 등장

농정주체의 확대 및 농정 접근방식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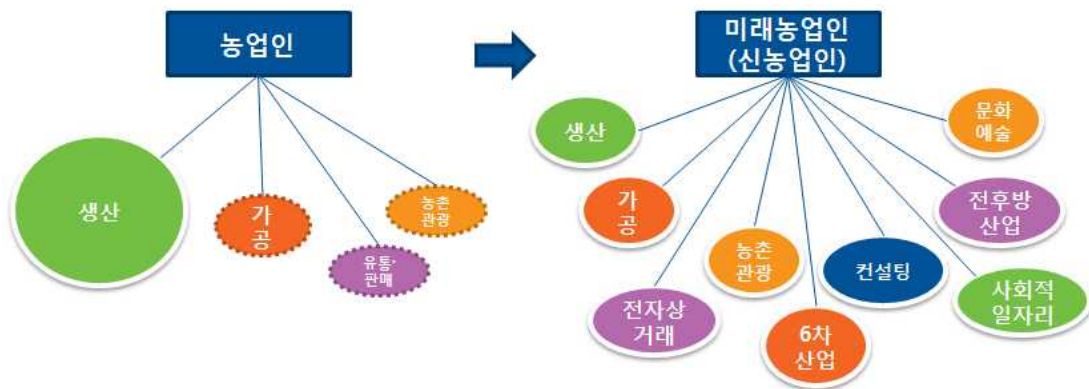
- 농어촌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가 기존의 농어업인 중심에서 비농어업인과 소비자를 포함한 도시민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농정의 주체가 확대되고 더욱 다양화 될 것임
- 농어업·농어촌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 농어업인만의 단순한 경쟁력 강화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에는 농어업인 외에 비농어업인, 소비자 및 도시민의 참여에 의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창출하고 이러한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임
- 특히,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착한먹거리 및 바른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그동안의 소비패턴과는 다르게 소비자가 먹을거리에 대한 직접적·능동적 대응(소비자협동조합 등)이 확대될 것이며 소비자의 농정 참여도 크게 확대될 것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농업인’의 등장

- 2020년 이후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도 농어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용하는 창의 계층(creative

class)이 거주하게 되면서 지식기반산업, 실버산업, 고령자, 여성 등에게 적합한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 지역의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의료·복지·환경 분야에서의 사회적 일자리와 문화·예술·디자인 관련 직업, 그리고 지역 주민보다는 계절형 방문객이나 주말 내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 숙박, 유흥업이 발달할 것임
- 아울러, 귀농·귀촌 컨설턴트, 도시농업 컨설턴트, 농촌유학 프로그램 매니저, 지역문화 해설사 등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미래농업인(신농업인)’이 등장할 것임
- 이러한 ‘신농업인’은 농식품의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농어업6차산업화, 농어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성장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 3농혁신 2030발전계획, 2014

<그림 3> 기존 농업인과 신농업인의 비교

농가 고령화의 진전 및 고령친화농업(실버농업)의 부상

-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전체 농가인구 대비 2005년 29.1%(999,306명)에서 2010년 31.1%(921,729명)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농어촌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실버농업이 부상하게 될 것임
- 실버농업으로 토지의존도가 낮고 작업의 강도가 적정 수준인 노동집약적 소득작목(약초, 복분자, 블루베리 등) 및 경량채소(대파, 고추, 마늘 등)가 재배가 증가할 것이며, 이 외에 전원형 실버농업 테마타운, 은퇴농장 및 은퇴자 마을, 농어촌 노인 복지단지 등과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농업, 주말농장 등이 활성화 될 것임